

# MZ 세대의 출현과 통일운동의 방향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문화 전쟁?

- 갈등이 일상화되는 세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남아공 폭동 (2021, 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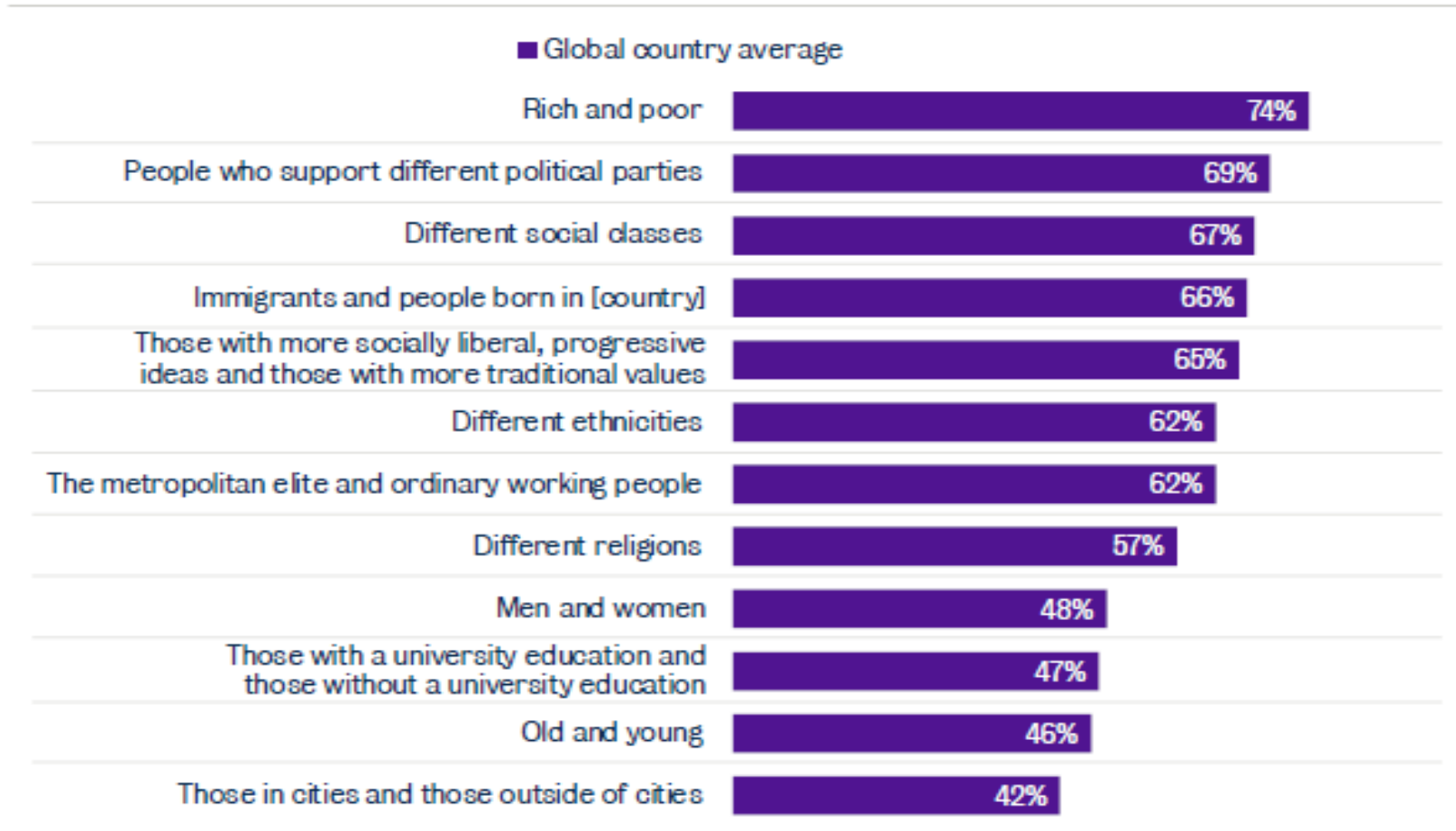


아프카니스탄 난민 사태

# 문화 전쟁? 한국과 세계 비교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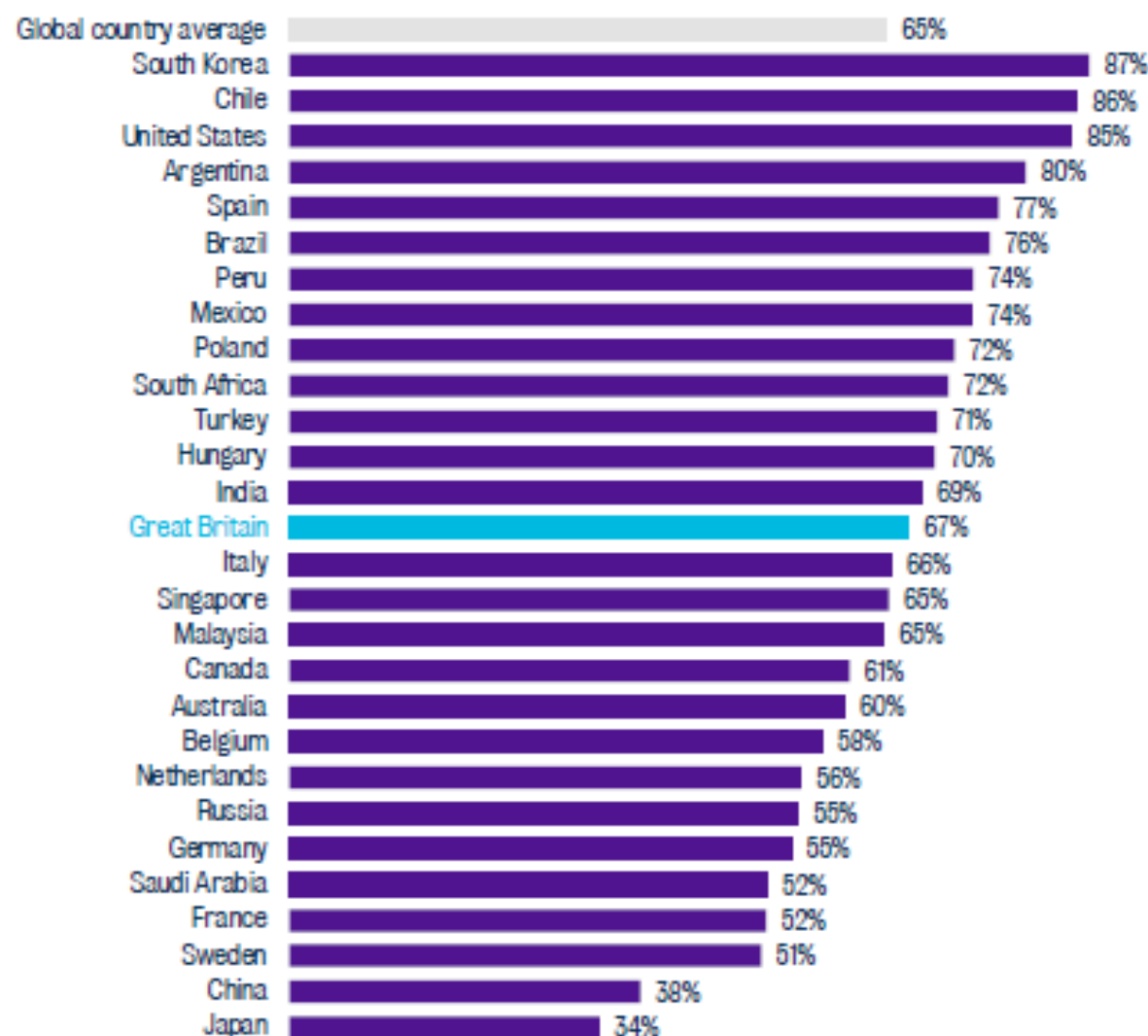
King's College London(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67% of people in Britain think there is at least a fair amount of tension between those with more socially liberal, progressive ideas and those with more traditional values in the country.

Among western European nations, Spain (77%) has the highest perceptions of tension between these two groups.

South Korea (87%), Chile (86%) and the US (85%) come top overall for such perceived t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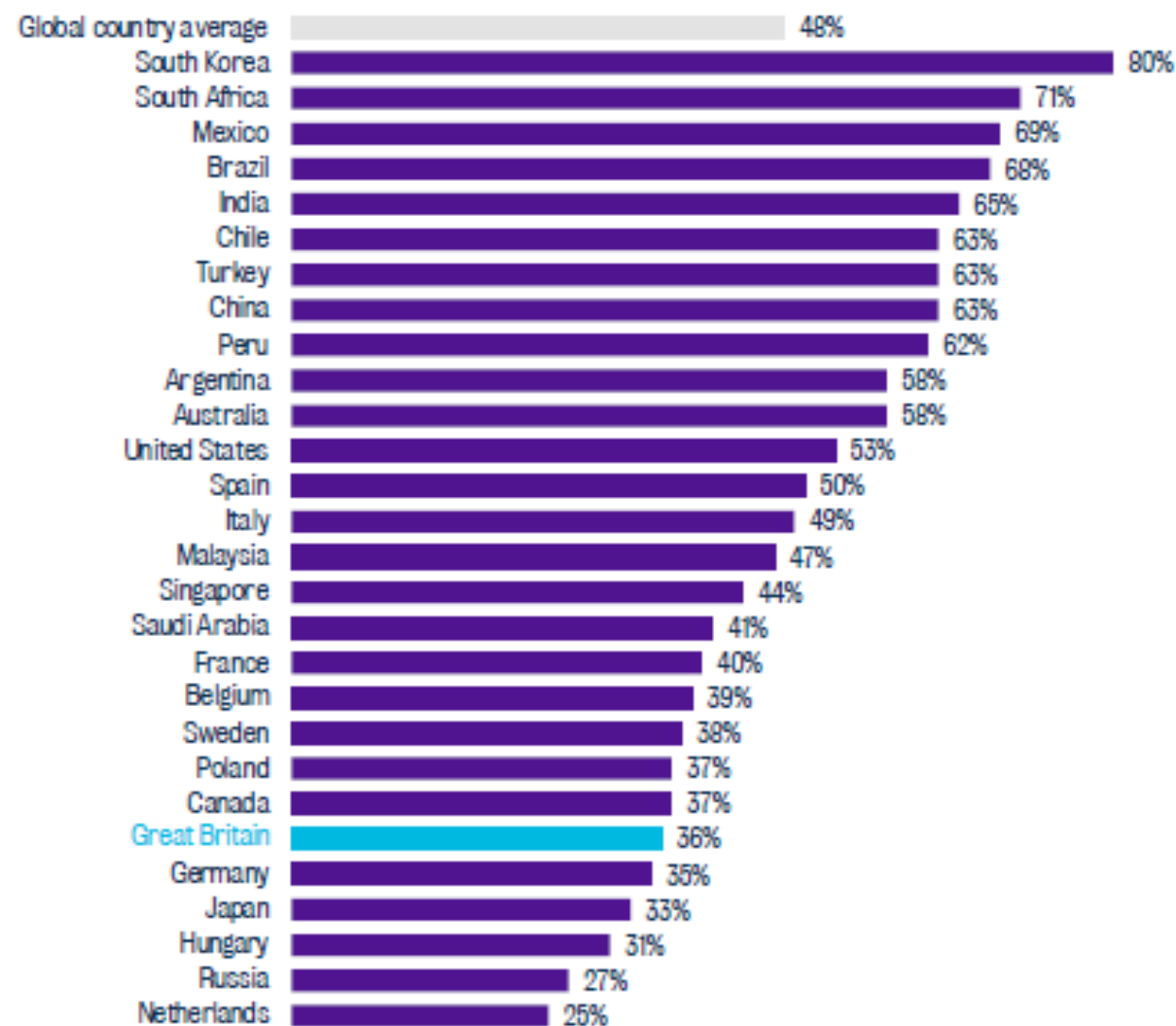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those with more socially liberal, progressive ideas and those with more traditional values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36% of Britons say there is tens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ountry – among the lowest of the nations surveyed and much lower than the US, where 53% of Americans think such tensions exist.

The Netherlands and Russia do best on this measure, with around a quarter of those in each nation believing there is tension across the gender div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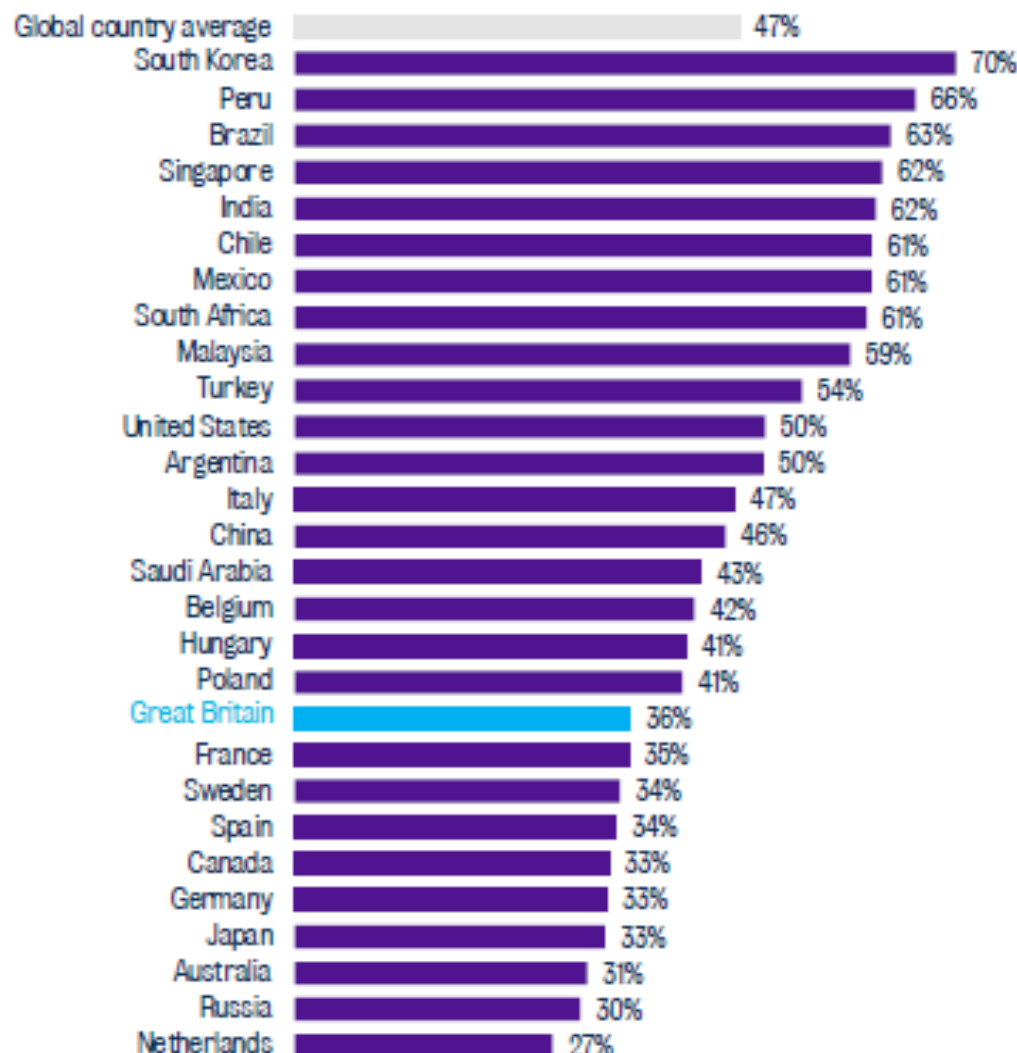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men and women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By global standards, relatively few people in Britain feel there is a notable amount of tension in their country between people who went to university and people who didn't – 36% think there is, compared with 70% who say the same in South Korea.

And these perceived tensions in Britain are in line with similar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35%) and Spain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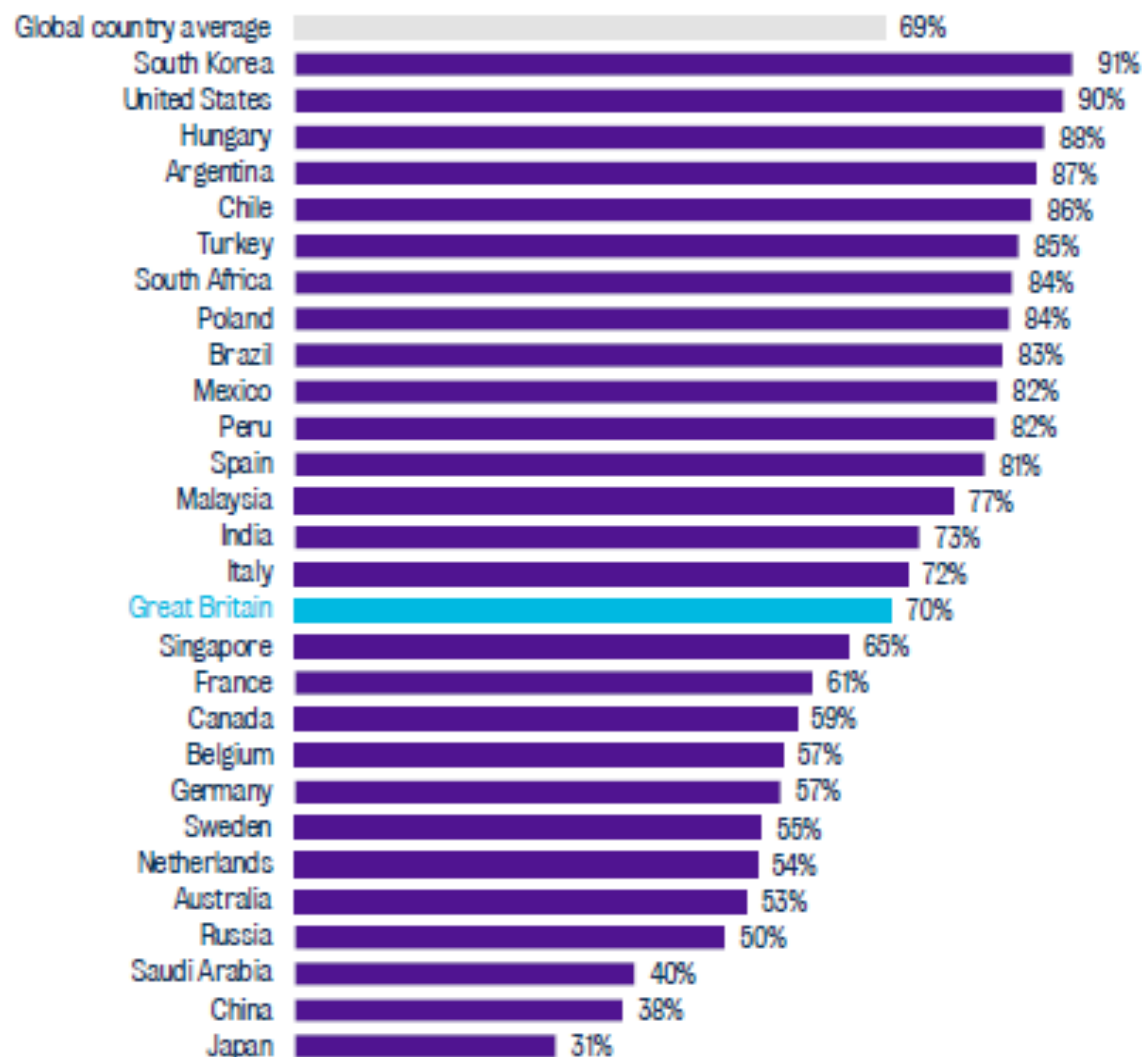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those with a university education and those without a university education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Britain is in line with the global country average for perceived tensions between people who support different political parties (70% vs 69%).

People in South Korea (91%), the US (90%), Hungary (88%) and Argentina (87%) are most likely to feel there is significant political tension in their country.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people who support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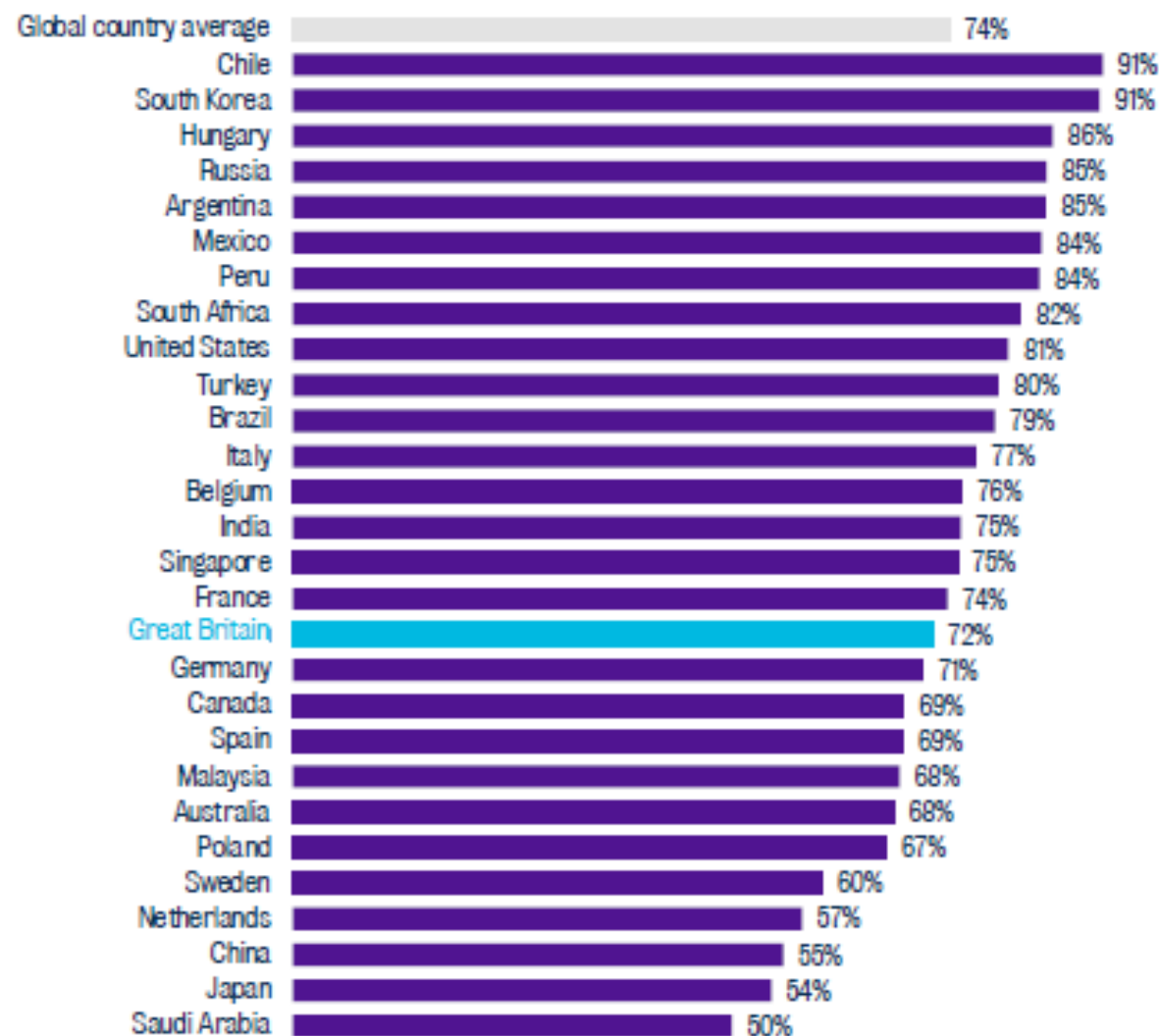


Chile (91%) and South Korea (91%) come top for perceived divisions between rich and poor.

European countries fare comparatively better, with Italy ranked highest among this group, with 77% believing there is at least a fair amount of tension between rich and poor.

72% of Britons feel this way, placing it in the bottom half of countries surveyed for perceptions of tension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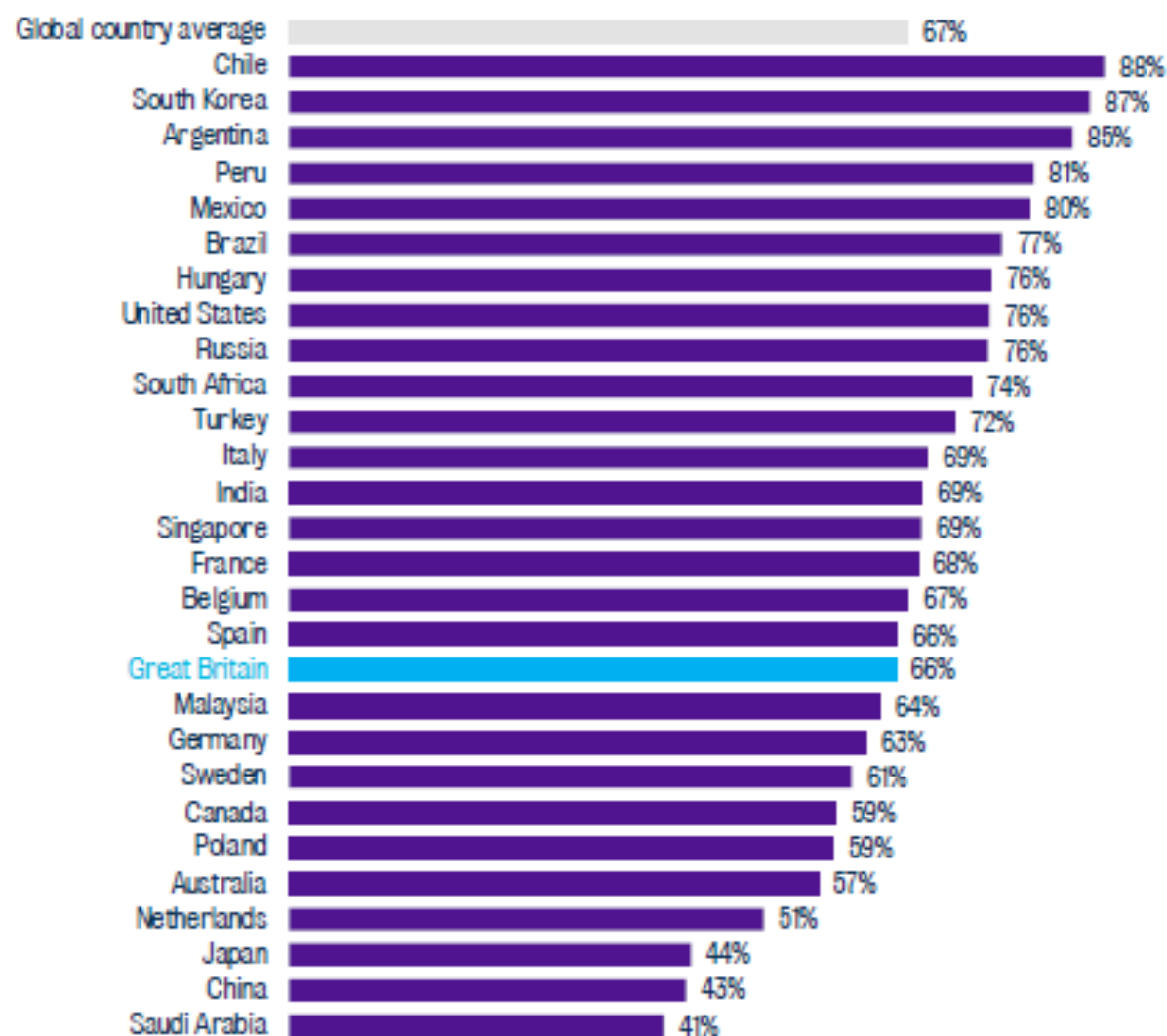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rich and poor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People in Chile (88%) and South Korea (87%) are also most likely to think there is tension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in their country.

Again, Britain is ranked in the bottom half of countries surveyed for perceptions of this kind of tension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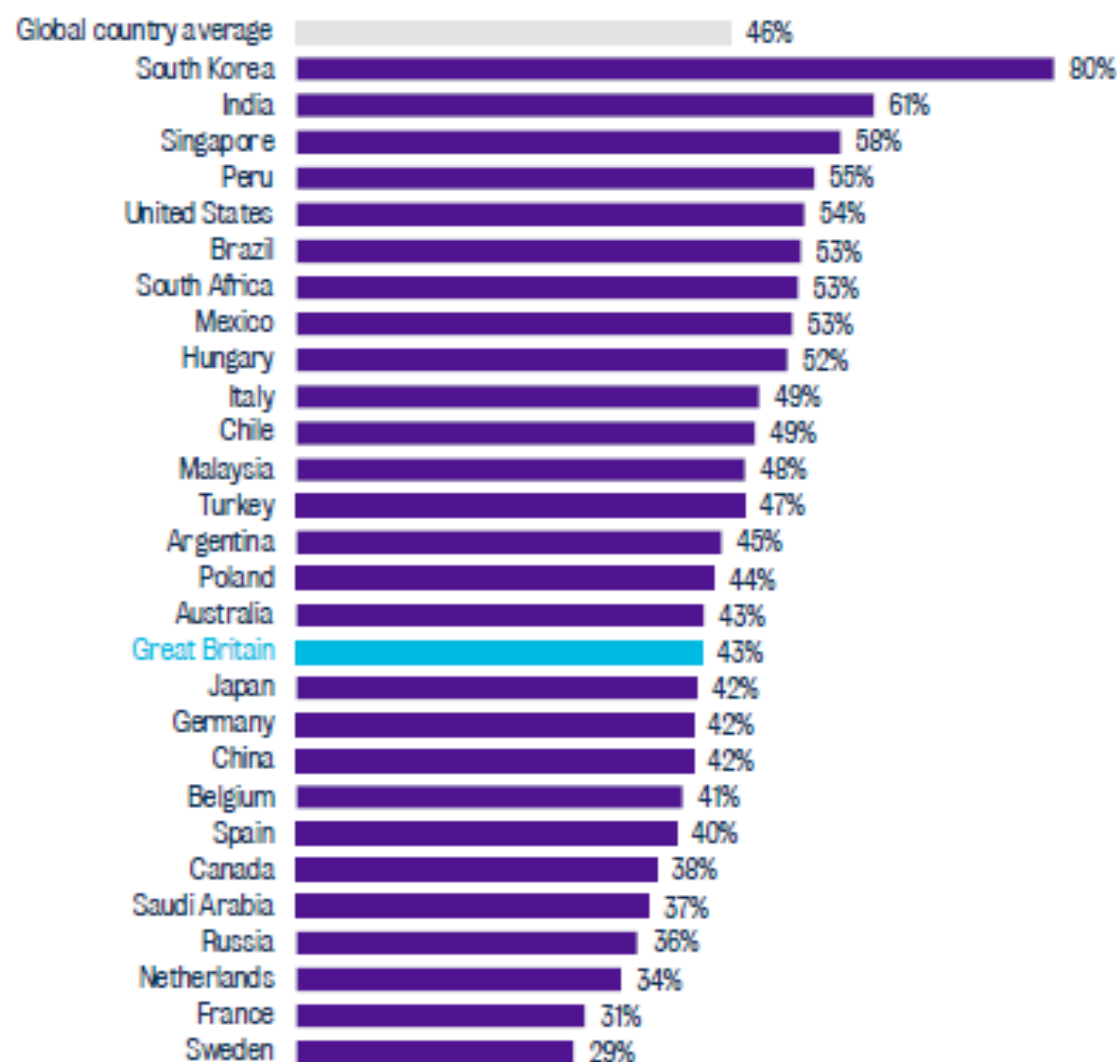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80% of people in South Korea think there is a great deal or fair amount of tension between old and young people in their country – far above India, where perceptions of generational tensions are second-worst, on 61%.

People in Sweden (29%) and France (31%) are least likely to perceive such tensions, while Britain comes in the bottom of half of nations surveyed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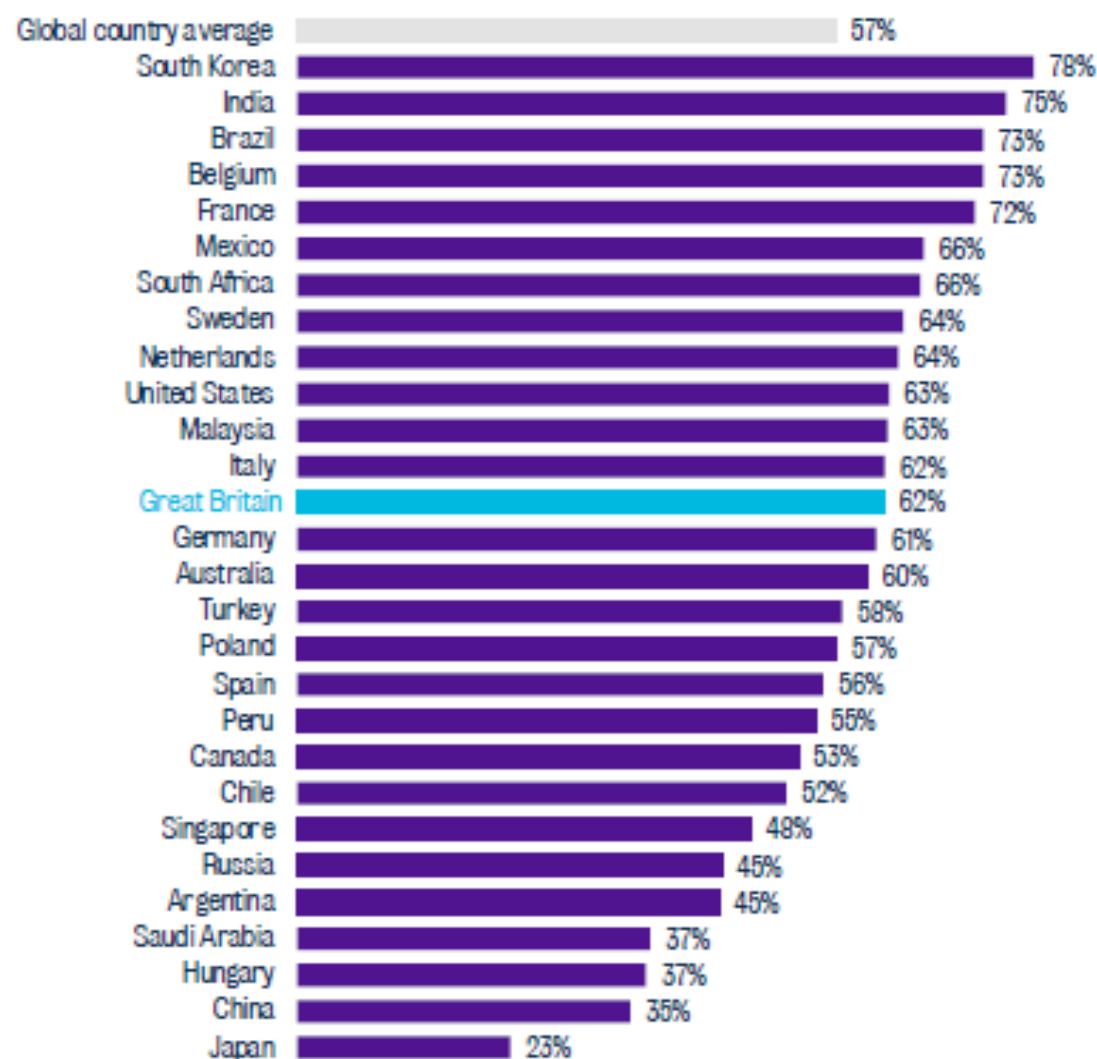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old and young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People in South Korea (78%) and India (75%) are most likely to say there is at least a fair amount of tension between different religions in their country.

The proportion of the British public who feel the same (62%) is the same as in the US (63%), and in line with the global country average (57%).

How much tension, if any, would you say there is between different religions in [country] today? % who say a great deal or fair amount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 OECD 주요국 중 갈등 지수 3위 (2020)
- 갈등이 변화된 매체를 통해서 확대재생산되어 더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상황
- 피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고착
- 분단과 압축적 경제 성장이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사회문화 구축  
(예: 압축적 근대화, 국가중심의 자본주의, 양극화, 비정상적인 이념 갈등, 일상에서 만연한 성폭력, 문화로서 확장된 군사주의)
- 최근에는 세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며, 특히 MZ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



# MZ 세대는 누구인가?

- MZ세대란 Millennials의 m과 제네레이션의 Z가 합쳐진 말.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로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음.
- Z세대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까지 출생한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집단을 가리킴.
- 고속인터넷과 SNS에 익숙하며 디지털에서의 빠른 소통에 익숙하며 다양한 취향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 MZ세대가 직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에는 2019년 초반으로 MeToo 운동과 페미니즘 논의의 확산 등이 본격화되던 시기  
→ 이후 '20대 남성'이라는 프레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증폭



# 20대 남자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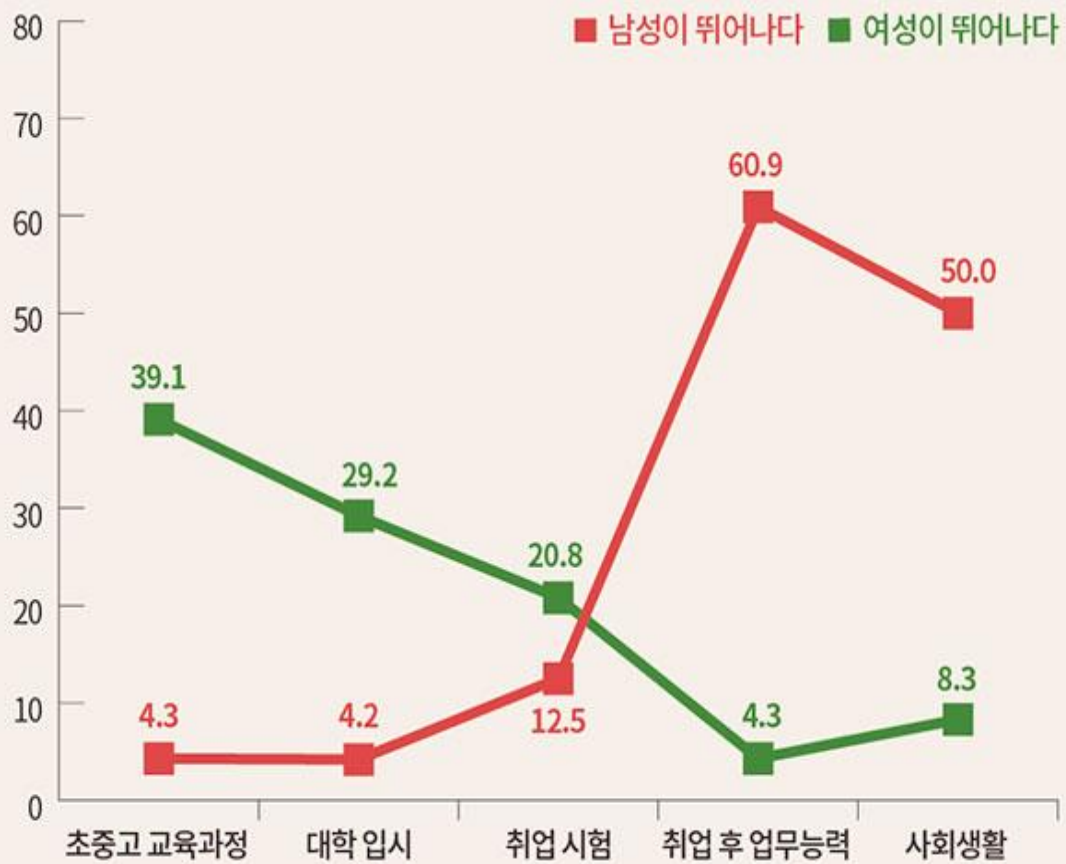
- 가설 1: 젊은 보수 세력의 탄생인가?
- 가설 2: 미투운동의 반작용 or 여성 혐오인가?
- 가설 3: 공정에 대해서 민감한 '새로운' 세대인가?

천관울 \* 정한울, 2021,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 한국 남자의 의식과 구분되는 '세대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 “남자가 차별받는다” 높은 지지율, “법 집행의 차별이 있음” 항목에 역시 높은 지지율  
→ 20대 남성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젠더와 권력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20대 남성의 핵심 현상  
→ ‘페미니즘’에 대한 절대적 부정적 인식

### 1. 반(反)페미니즘 정체성 20대 남성이 생각하는 생애주기별 남녀 능력 차이

단위: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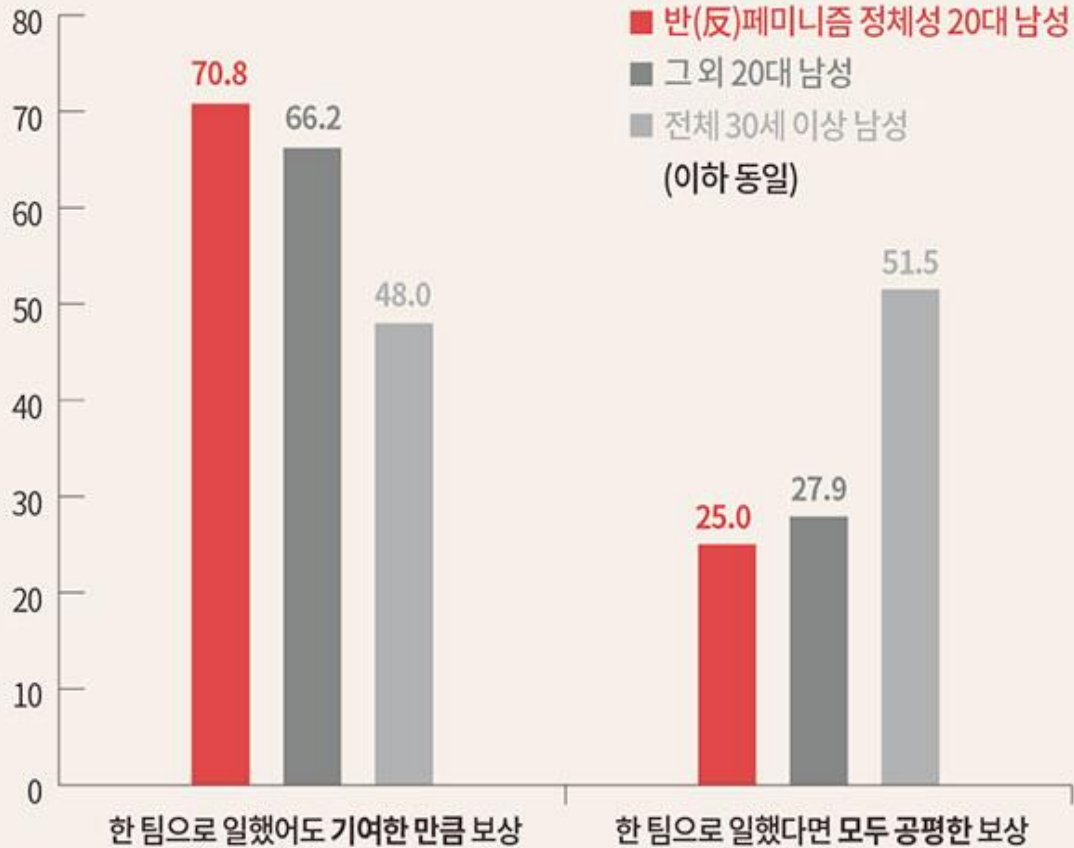
### 3-2. 취업 시 여성할당 정책



(사)서울YWCA

### 3-1. 무엇이 공정한가,

#### 한 팀으로 올린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과 공평한 보상



공정을 중시하는 감각은 전 세대, 성별에 공통적으로 등장  
 다만 30대 이상 남성은 20대 보다는 더 '공평 보상'을 응답  
 20대 여성도 '공평 보상'보다는 '차등 보상'을 선호

- 20대는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을 공정과 정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책(여성할당제, 장애인 지원책, 이주민 자녀 할당제, 지역 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
- 다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20대 남성들의 다른 세대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음.
- 이를 두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20대 남성의 공정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이 유추 가능 (귀인이론 :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내부) 아니면 타인에게 있느냐(외부))
- 맥락이나 구조라는 복잡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을 보수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 가혹하게 판단함으로써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심성



**감사합니다**

# 그룹토론





# 그룹토론방법

1. 미리 편성된 소회의실로 입장 예정입니다.
2. 소회의실에 들어가면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고,  
미리 정해진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3. 토론은 40분간 진행합니다. 종료 1분 전 60초 카운트다운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4. 서기는 본회의실로 돌아오자마자 채팅방에 파일을 보내주세요.
5. 발표자는 3분 동안 발표합니다.

# 토론주제

**필수주제**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MZ 세대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 선택주제**
1.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분단상황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감과 성찰을 나눠주세요.  
또한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군사문화의 잔재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눠주세요.  
ex. 선후배 문화(서열), 조직 내 위계(상명하복 등), 남성연대,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폭력(군사주의하에서 여성의 타자화/성적도구화), 입시/학벌위주와 서열화(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되는 전쟁에서의 승자지향성), 폭력적인 군대문화로 일상의 폭력에 무감해지는 현상, 젠더이분법(전쟁에 나가 지키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군복무를 노동 시장 진입과 연계하여 남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 확보)
  2.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는 시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살하거나, 탈남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미개-비이성-비민주” vs “남한-문명-이성-민주”라는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담론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성찰해보고, 대등한 존재로서 통일을 이루어가기 인식 전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3. 분단상황에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은 통일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YWCA는 평화통일 담론에 페미니즘의 감수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그룹토론 기록지를  
보내주세요**

2021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 걸는 평화순례

2021 YWCA 여성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홀로 걷는 평화순례 참여방법

STEP 1



'워크온'  
어플설치 및 회원가입



STEP 2



초대 링크를 통해  
'홀로 걷는 평화순례'  
커뮤니티 가입



STEP 3



평화순례 진행  
(만보 걸기)

STEP 4



순례 중 인증샷 찍기  
(하늘색 아이템 착용)



STEP 5



커뮤니티 내 '게시판'  
'글쓰기란'에 인증샷 올리기



STEP 6



참여완료!

YWCA 평화포럼



MZ 청년세대와  
**평화**를 이야기하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서울YWCA